

문화관광 인사이트

제 118호

문화·관광 인사이트
제118호
2018. 06. 27
발행처-한국문화관광연구원
www.kcti.re.kr

지속가능한 인문정책, 진단과 모색

김 면 | 문화여가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1 들어가며

현대사회는 소위 말하는 ‘인문학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인문학 위기란 인문학적 가치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관심이 차단되거나 혹은 줄어들어, 인문학의 위상이 다른 학문의 위상에 비해 위축되었음을 의미한다. ‘문송합니다(문과를 나와서 죄송합니다)’라는 신조어가 나타날 정도로 취업률에 따라 인문학 전공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에 따라 과학기술에 비해 인문학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또한 미디어 매체가 다양화됨에 따라 많은 정보를 쉽게 얻게끔 해준 대신에 독서와 사색과 같은 인문학적 활동을 통하여 자아를 성찰하고 삶의 의미를 음미하는 일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인문학 위기가 거론된 이후, 정부의 인문학 진흥 정책으로 2006년부터 학술진흥재단(現한국연구재단)을 통한 인문학의 대중화 사업이 시행되었다. 교육부 중심으로 정책 사업이 시행되다가 창조경제, 문화융성이라는 국정 기조에 따라 인문학 진흥 정책이 확대되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인문정신문화 진흥사업이 진행되었다.

2016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공동 법안으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인문, 인문정신문화 등 개념 정의 및 정책 추진에 있어 법적 토대를 구축하였다. 이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길위의 인문학’,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인문 360’, ‘국학 전문 인력 양성 사업’ 등 인문가치를 확산하고, 전통 인문자산을 활용하는 정책 사업들이 다양한 방면에서 시행되고 있다.

그림1 | 인문정신문화 진흥 정책 기본계획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7),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2017~2021)」

인문정신문화는 자아성찰뿐 만 아니라, 공동체의식 및 시민의식 함양, 창조성 증진 등에 있어 중요하며, 사회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 및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주도적인 인문정신문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고에서는 현시점에서 인문정신문화의 실태를 점검하고 정책추진에 대한 방향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 drmyunkim@kcti.re.kr, 02-2669-8990
** 본 원고는 인문정신문화 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연구책임: 김면, 2018년 6월 발간) 결과가 일부 포함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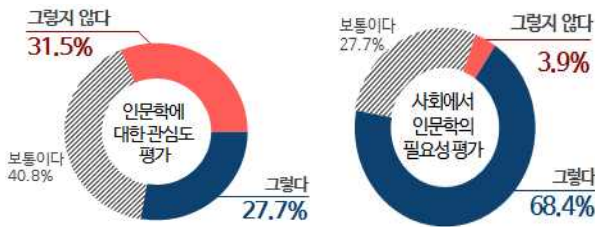
2 인문정신문화 실태조사 주요 결과

2018년 4월 2일부터 4월 30일 약 한 달간 일반국민 4,500명을 대상으로 인문정신문화 실태조사가 실시되었다. 본 조사 결과를 통해 인문정신문화에 관한 사회적 인식과 인문정책 사업 수요 실태를 파악하고 인문정책의 사회효과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 인문정신문화에 대한 인식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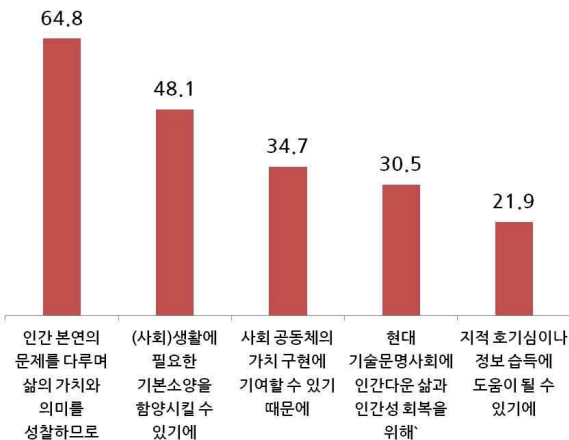
인문정신문화 인식에 대한 문항 중,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문학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고 생각하는가’에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가 27.7%,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가 31.5%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사회에서 인문학의 필요성이 높다고 생각하는가’에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는 68.4%,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는 3.9%로 응답되었다.

그림-2 | 인문학에 대한 관심도와 필요성



인문학에 대한 관심도는 27.7%로 다소 낮게 나타났으나, 우리사회에서 인문학의 필요도는 68.4%로 절반 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3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가 중요한 이유(1+2순위,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가 중요한 이유에 대한 문항에서는 ‘인간 본연의 문제를 다루며 삶의 가치와 의미를 성찰하므로’ 응답이 64.8%(1+2순위)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는 경향을 보였다. 다음으로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함양시킬 수 있기에(48.1%)’, ‘사회 공동체의 가치 구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34.7%)’, ‘현대 기술문명사회에 인간다운 삶과 인간성 회복을 위해(30.5%)’, ‘지적 호기심이나 정보 습득에 도움이 될 수 있기에(21.9%)’ 순으로 나타났다.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한계점에 대한 문항에서는 ‘내용이 어렵고 추상적이라 접근성이 낮기 때문에’ 응답이 64.8%(1+2순위)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낮은 연령층에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다음으로 ‘취업 및 직장업무에 직접적 관련성이 적기 때문에(50.9%)’, ‘시대적 전환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31.6%)’, ‘인문학에 대한 흥미나 관심 자체가 없기 때문에(29.4%)’, ‘지역과 사회발전에 활용되거나 도움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23.2%)’ 순으로 나타났다.

■ 인문정신문화 활동 습득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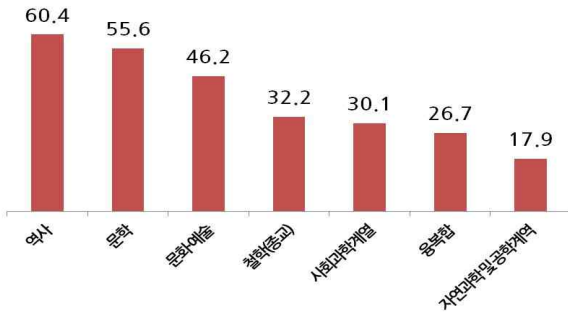
인문정신문화 활동 습득 실태는 인문관련 프로그램 참여경험 여부, 참여 유형, 시설방문 및 대중매체를 통한 인문 프로그램 참여 현황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인문관련 프로그램 참여경험 여부는 ‘있다’가 14.5%, ‘없다’는 85.5%로 대다수가 경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한 경험이 있는 국민들은 ‘독서 및 자료탐색’이 39.1%(1+2순위)로 가장 높았으며, ‘문화시설 강의수강(37.4%)’, ‘TV프로그램 시청(32.4%)’, ‘온라인(미디어)강의 수강(31.3%)’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표-1 | 인문관련 프로그램 참여유형(1+2순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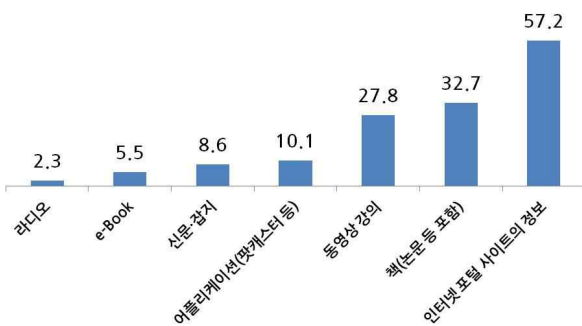
참여유형	비율 (%)
독서 및 자료 탐색	39.1
문화 시설 강의 수강	37.4
TV 프로그램 시청	32.4
온라인(미디어) 강의 수강	31.3
탐방 및 체험 활동	24.0
학술 행사 (세미나 및 포럼)	23.1
커뮤니티/모임/동아리 활동	12.6

그림-4 | 인문정신문화 습득 참여분야(복수응답, %)



인문정신문화 습득의 참여 분야는 ‘역사’가 60.4%로 가장 많았으며, ‘문학(55.6%)’, ‘문화예술(46.2%)’, ‘철학(종교)(32.2%)’, ‘사회과학계열 인문강좌(30.1%)’, ‘융복합 인문강좌(26.7%)’,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인문강좌(17.9%)’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5 | 인문정신문화 지식습득 시 이용 대중매체(1+2순위, %)



인문 프로그램을 수강 유형은 ‘시설 방문이용(65.3%)’과 ‘대중매체 이용(61.6%)’으로 이뤄지는데, 대중매체 유형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정보’가 57.2%(1+2순위)로 가장 높았으며, ‘TV(55.9%)’, ‘책(논문 등 포함)(32.7%)’, ‘동영상 강의(27.8%)’, ‘어플리케이션(팟캐스트 등)(10.1%)’, ‘신문, 잡지(8.6%)’, ‘e-book(5.5%)’, ‘라디오(2.3%)’ 순으로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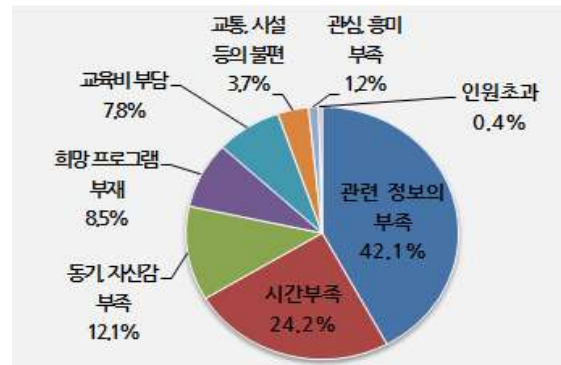
대중매체를 통해 인문 프로그램의 수강시간은 ‘평일 저녁 이후’가 44.5%로 가장 높았으며, ‘주말오후(20.7%)’, ‘평일오후(14.3%)’, ‘주말오전(13.4%)’, ‘평일오전(7.2%)’ 순으로 수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참여한 인문 프로그램 강좌 수는 오프라인, 온라인에서 모두 ‘5개 미만’이 각각 84.7%, 77.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절반 이상이 1년간 5개 미만(57.1%)의 인문 프로그램 강좌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인문관련 프로그램에 참여경험 여부 문항에서 ‘없다’라고 응답한 85.5%는 참여하지 못한 요인에 대

해 ‘관련 정보의 부족’이라는 응답이 42.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시간부족(24.2%)’, ‘동기, 자신감 부족(12.1%)’, ‘희망 프로그램 부재(8.5%)’, ‘교육비 부담(7.8%)’, ‘교통, 시설 등의 불편(3.7%)’, ‘관심, 흥미 부족(1.2%)’, ‘인원초과(0.4%)’ 순으로 응답하여 인문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형태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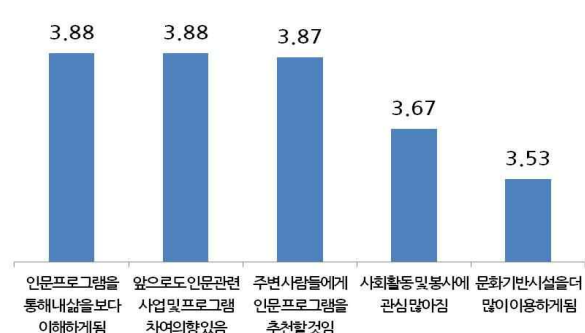
그림-6 | 인문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한 요인



■ 인문정신문화 활동에 대한 나눔 및 활용 실태

인문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효과에 대해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인문프로그램을 통해 내 삶을 보다 이해하게 됨(3.88점)’과 ‘앞으로도 인문관련 사업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향이 있음(3.88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밖에 ‘주변 사람들에게 인문 프로그램을 추천할 것임(3.87점)’,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에 관심이 많아짐(3.67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7 | 인문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효과(5점 척도)



인문 나눔 및 활용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로는 ‘참여할만한 기회가 없어서(25.9%)’가 가장 높았으며, ‘의향은 있었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23.8%)’, ‘관련 정보가 부족하고 알지 못해서(19.2%)’, ‘참여하고 싶은 활동 프로그램이 없어서(16.4%)’, ‘관심이 없어서(14.7%)’ 순으로 응답했다.

3 인문 공공프로그램 실효성 제고와 보완방향

■ 인문강좌 운영의 개선점

인문정신문화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 문항은 ‘제공되는 프로그램 내용 및 수준(2.93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전문인력들의 수준(2.87점)’이 그 다음이었다. 설문 중 ‘인문, 인문학, 인문정신문화 관련 활동을 하기 위한 문화기반시설(2.73점)’, ‘인문, 인문학, 인문정신문화 관련 활동을 위한 법과 제도(2.68점)’, ‘정부의 지원정도(2.62점)’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점수결과를 나타낸바, 인문 사업운영의 효과를 담보하기 위한 정책기반의 기틀과 기초적 역량이 보다 갖추어질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 | 인문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 및 보완점(5점 척도)

1회성이 아닌 중장기적 운영되어야 함	3.83
프로그램의 주제분야가 다양해져야 함	3.80
교육시설 및 문화기반시설 환경이 개선되어야 함	3.77
대화 및 토론 강화를 통한 쌍방향 운영되어야 함	3.67
프로그램의 내용이 더욱 심화되어야 함	3.64
체험 및 실습 위주의 현장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함	3.62

인문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 및 보완점에 대해서는 ‘1회성이 아닌 중장기적 진행으로 운영되어야 함(3.83점)’이 가장 높았으며, ‘프로그램의 주제 분야는 좀 더 다양해져야 함(3.80점)’, ‘교육시설 및 문화기반 시설의 환경이 개선되어야 함(3.77점)’, ‘대화 및 토론이 강화되어 쌍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함(3.67점)’, ‘프로그램의 내용이 좀 더 깊이가 있어야 함(3.64점)’, ‘체험 및 실습 위주로 진행되어 현장 중심이어야 함(3.62점)’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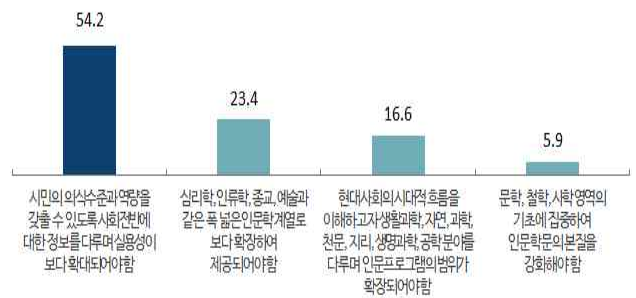
■ 인문프로그램의 기획 및 공공강좌 개발방향

최근 인문학 관련 프로그램이 文, 史, 哲을 넘어서 사회과학계열,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등의 학제 간 영역에서도 활발하게 이뤄지는 바, 인문학과 연계하여 시대적 흐름을 이해하고 시민의 의식수준 및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며, 특정한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

한 학문간 교류와 융합에 기반을 둔 프로그램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이번 대국민 조사에서 인문 프로그램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묻은 결과, ‘사회전반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경영·경제·정치 등 사회과학 계열로 확대해야 한다(54.2%)’, ‘인간과 주변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문화예술·심리학·인류학 등 인문계열로 확장해야 한다(23.4%)’ 등의 순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반면 문학, 사학, 철학, 예술의 기초에 집중해야한다는 답변은 5.9%에 불과하였다.

그림 8 | 인문 프로그램 발전방향(%)



4 인문정신문화 정책의 발전 방향과 과제

■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인문총괄위원회 구성, 운영

인문사업 지원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인문총괄위원회를 구성하여 인문정책 목표와 분야별 전략과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인문정책은 단일부처의 정책이 될 수 없는 만큼 개별부서가 독자적 정책추진으로 분절된 사업을 운영하여왔기에, 현행 부처별, 지역별 유사사업이 중복돼 예산집행의 문제점과 사업의 효과성을 반감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인문사업에 대한 수요와 공급체계에 대한 정책을 다루는 범부처 차원의 총괄기구를 두어 타 기관, 부처와의 협력을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

미국의 ‘국립인문재단’(NEH), 독일의 ‘독일연구협회’(DFG), 프랑스의 ‘국립학술연구원’(CNRS)같은 공공 인문기구의 운영사례는 인문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기적으로 인문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효율적인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정책추진 전반에 필요함을 보이고 있다.

■ 학제 간 및 융합영역으로의 강좌 발전방안 강화

설문조사에서 인문학은 사회구조적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인문학이 학문 간 경계를 허물고 영역 간 교류를 이루기 위해 서라도 학제 간의 연구가 절실한 시점이다. 인문실태조사에서 응답자 5.9%만이 문사철을 고집했을 뿐, 70.8%가 넘는 시민들이 인문프로그램에서 사회전반의 정보 혹은 자연계열 영역까지 포괄하고 실용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따라서 인문학이 실사구시의 정신에 기반을 두어 인문학계열은 물론 사회과학, 나아가 과학기술 영역과의 학제 간 연계를 통해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좀 더 실질적으로 사회적 수요를 담아낼 수 있도록 인문사업의 기능을 더 넓게 확장하고, 인문학 융복합 통합 프로그램을 개척, 운영방안을 고민하는 종합적인 발전계획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 디지털환경을 반영한 인문정책 방안의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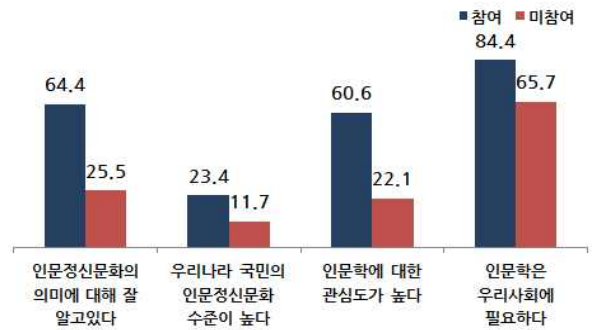
오늘날 매체가 다양해지고 멀티미디어 환경이 조성되면서 디지털매체와 방송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인문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다. 활용매체로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정보(57.2%)’, ‘TV(55.9%)’, ‘동영상 강의(27.8%)’, ‘어플리케이션(팟캐스트 등)(10.1%)’ 등이 확인되듯이 온라인을 활용한 인문강좌 및 지식습득이 중요해진 설문결과를 보인다. 인문학 활성화를 위하여 시대적 변화에 맞춘 프로그램의 콘텐츠 개발뿐만 아니라, 참여시간에 구속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강좌 내용을 참신하고 풍부하게 전달하는 기술매체적 특성을 발전시킬 것을 요구받고 있다. 인문사업의 새로운 제도적 장치와 정책 개발에서 디지털 라이브러리 구축, 상호소통형 교육강좌, 온라인 정보제공 등 매체확대와 영상텍스트의 발전 등이 시급히 요청된다.

■ 소통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인문활동 확대

조사에서 인문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응답자 중 인문학의 의미를 잘 알고 있다는 답변이 64.4%, 인문학이 우리사회에 필요하다는 응답이 84.4%를 기록한 반면, 비참여자는 인문학 의미를 안다는 답변이 25.5%, 인문학이 우리사회에 필요하다고 65.7%가 대답했다.

인문활동 참여에 따라 큰 격차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9 | 인문 프로그램 참여 여부에 따른 인문정신문화 인식수준(%)



또한 인문 프로그램의 참여 이후 변화 및 효과와 관련하여 많은 참여자들이 개인적 삶의 가치변화(58.8%), 여가를 통한 문화적 삶의 질 고양(31.8%)과 함께 사회공동체를 위한 참여활동(30.5%)을 이루고 있다. 인문 습득이 정보교류, 동호회, 봉사활동으로 연계되어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 공공적 시민성 회복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인문학은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실천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이루는 토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인문적 가치를 확산하고 사회참여의 정신을 창출할 수 있도록 인문 프로그램에 접근성을 높이는 체계적인 지원방안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문화체육관광부(2017),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2017~2021)」, 박재술(2007), 「인문학 강좌 실태 조사 연구」, 한국학술진흥재단
 염재호·최호철(2002), 「한국 인문정책의 변동과정 및 정책과제 연구」, 인문사회연구회
 조주연(2011), 「미국 NEH의 공공 프로그램을 통해 본 인문학의 문화적 활용 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